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856호 - 미얀마]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시행 초읽기

미얀마의 개혁 정책에 대한 기사가 연일 현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4월 1일 실시된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도 구체적인 경제 제재 해제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항상 가능성만 보여주던 미얀마가 본격적으로 세계무대에 얼굴을 내미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급격한 개방이 줄 미얀마 경제의 충격파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미얀마 경제발전과 외국인 투자 기회에 대한 기대감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지만 미얀마 자체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도 투자를 가로막는 데 한몫했다. 1988년 제정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은 외국인이 미얀마에서 35% 이상 지분 투자를 하면 100%까지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유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외국인의 이익배당 송금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임대 받아야만 했고 외국인이 납입한 자본금은 시장 환율과 동떨어진 공식 환율에 의해 표기돼야 했다. 공식 환율은 시장 환율과 크게는 130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왔다...(중략)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제856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